



2014 제4호

고비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소식지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고비란 간찰, 편지 같은 것을 꽂아 두는
물건 우리 도서관은 소식지 '고비'를 통해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추
억을 하나하나 엮어 갈 생각이다.

| Contents |

- 02 늘봄어린이독서회원 글마당
- 03 독서칼럼
- 04 도서관행사마당
- 06 평생교육마당
- 07 도서추천
- 08 도서관 이용안내



중요한 사실

(‘중요한 사실’을 읽고)

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나는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비슷한 거지만 나는 만드는데도 좋아
나는 달리기와 노는 것도 좋아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과학자, 요리사도 되고 싶고…
음… 운동선수도 되고 싶어

하지만 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거야!

오은재 (늘봄어린이독서회원)

미미에게

(‘있는 그대로가 좋아’를 읽고)

미미야 나는 민서야
네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효효도 니가 불평해서 많이 속상했을 거야

미미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효효도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 효효랑 만나면 꼭 사과해

박민서 (늘봄어린이독서회원)



성공한 그 사람과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정은숙(출판인, 시인)

며칠 전 한 컷의 스마트폰 사진이 인터넷에서 뜨겁고도 즐거운 화제가 되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천진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었다. 소년의 표정도 사랑스러웠지만 사실 화제가 된 것은 소년 뒤 배경으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네 아저씨' 둘 때문이었다. 사진 찍히는 줄 모르고 편안하게 수다 떠는 듯한 그 아저씨들은 워렌 버핏과 폴 매카트니였다. 어머니, 이 두 사람의 조합을 한국식으로 해석하자면 삼성 이견희 회장과 조용필 가수가 동네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을 상상하면 된다는 댓글도 유머러스하였다.

기업인이며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10대에 아르바이트로 모은 1만 달러를 주식에 투자하면서 일찍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빌 게이츠와 함께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은 현재 팔십이 넘는 나이에 건강하게 활동하며 전 세계 뉴스를 장식한다. 그가 돈만 잘 버는 기업가였다면 세계인들이 이토록 추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미 많은 기부를 해왔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업인인 워렌 버핏은 '현인'이라 불린다. 기업가 누구나 그를 한번이라도 만나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점심'이라는 이벤트 상품은 몇 십억이라는 가격으로 경매에 부쳐지기도 한다.

비틀즈라는 세기적 록 밴드 출신인 폴 매카트니도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중음악가로 기록되어 있다.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비틀즈의 노래는 우리 귓가에 수시로 달고 가슴을 뛰게 한다. 멤버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뮤지션도 있지만 폴 매카트니는 칠십이 넘어서 오늘도 음악을 한다. 더구나 음악뿐만 아니라 동물보호, 지뢰반대 활동 등에 앞장서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위대한 두 사람의 자연스럽고 소탈한 모습이 한 컷에 담겼으니 볼 만하지 않겠는가. 나는 책을 만드는 출판인으로서 이 사진 속 소년에게 뭔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 위대한 인물과 함께 사진 찍힌 행운을 가진 소년이 실제로 그 인물과 대화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대화라고? 가능하다.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하자고, 시간을 내달라고 조를 필요가 없다. 그들이 쓴, 혹은 그들이 직접 말로 쓴 책을 읽으면 된다. 수십 억을 내면서까지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이야 특수한 경우지만, 워렌 버핏의 인생과 성공, 행복과 삶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면 그의 책만 펼쳐 들면 된다.

폴 매카트니의 세상에 대한 생각, 뮤지션으로서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비틀즈 앤솔로지>라는 책을 펼치기만 하면 된다. 얼마 전 나는 스틱이라는 뮤지션이 우울한 소년 시절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기까지의 성장담을 직접 쓴 책을 만들기도 했다. <스티크> 책을 만드는 동안 나는 그와 친해진 듯했다. 그가 나만을 위해서 속삭이는 느낌이었다. 책이란 가장 잘 정리된 한 사람의 깊은 생각의 집이자 논리가 생생한 실생활 교과서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책을 펼치면, 그 성공한 인물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위대한 인물과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독서다.

우리 모두는 각자 미래의 삶이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미래가 나의 것이므로.

도서관 행사 마당



제50회 도서관주간

‘도서관!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레는 동행’을 주제로 4월 12일(토)에서 18일(금)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되었다. 추천도서 전시회, 원화전시회 ‘영이의 비닐우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롤렛 독서퀴즈’, 인형극 ‘피노키오’, ‘엄마랑 함께 양말인형 만들기’, 관외대출 이용자들을 위한 주간이벤트 ‘포춘 쿠키 & 힐링북’ 행사를 통해 베스트셀러 도서를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늘품어린이독서회 확대 운영

우리 도서관은 작년에 이어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늘품어린이독서회를 운영했다. 독서회원들의 꾸준한 참석으로 이번 해는 월 2회로 운영회수가 늘면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독서모임을 가졌다. 3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독서강사를 섭외하여 독서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며, 회원의 바람직한 독서생활을 형성하고자 독서회 참여를 독려했다.



영양과학 축전 - ‘우리들의 꿈과 끼, 과학으로 키워요!’

영양군내 초·중등학교 및 유관기관이 함께한 2014 빅뱅! 영양과학 축전이 2014년 6월 17일(화)에 개막하였다. 영양군민회관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과학, 기술, 예술이 어우러진 흥미로운 탐구 과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과학적 태도를 길러 융합인재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우리도서관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간이 홀로그램 만들기 체험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에코마이크 만들기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여름독서교실 운영

‘생활 속 안전지킴이, 나도 이제 안전왕’을 주제로 7월 29(화)부터 8월 1일(금)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영양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었다. 선정된 도서는 ‘자신만만 안전왕’으로 잇불이야(화재대피도 만들기), 교통표지판 만들기, 독서토론, 독서퀴즈(안전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린이들에게 독서교실을 통한 독서의 즐거움 발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독서지도를 통한 자발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어 폭넓은 독서경험을 통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빈틈없는 계획이 있니? 그럼 가지마. 여행은 틈을 만나러 가는 거야.

<정철 '내 머리 사용법' 中>



9월 독서의 달

2014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하고, 이를 통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9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도서관과 영양문화원에서 각종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명	기간	대상	내용
룰렛 독서퀴즈	2014.9.2(화)~26(금)	도서관이용자	도서관 퀴즈를 풀고 응모 후 추첨을 통해 상품 수여
행운의 책갈피	2014.9.2(화)~30(화)	도서대출회원	행운의 책갈피가 든 도서를 대출하는 이용자 10명에게 상품 증정
민화 전시회	2014.9.3(수)~5(금)	지역주민	우리도서관 민화강좌 수강생 및 지도강사 민화작품 40점 전시
원화 전시회	2014.9.11(목)~25(목)	도서관이용자	'태양의 새 삼족오' 원화 전시
방방곡곡 문화 공연단 공연	2014.9.11(목)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뮤지컬 '파랑새' 공연
인형극 공연	2014.9.12(금)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인형극 '친구야 사랑해' 공연
생활소품만들기	2014.9.17(수)	지역주민	넵킨아트를 활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다독자 표창	2014.9.17(수)	관외대출회원	관외대출회원 중 다독자 6명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2014 칠곡)

2014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칠곡보생태공원에서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평생학습, 창조문화의 시작'을 주제로 경북에 소재한 약 130여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여 지역민에게 평생학습을 안내하고 관련 사업을 홍보하였다. 우리도서관은 '민화(民話) 선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작품전시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22개의 참가기관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4 영양 책사랑 축제

학교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책과 축제 분위기를 연결시켜 독서운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영양 책사랑 축제가 11월 14일(금) 영양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영양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책사랑 축제는 '매직쇼'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각 학교에서 참가한 전시회와 독서체험마당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도서관은 넵킨아트를 이용한 '나만의 필통 만들기'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책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평생교육 마당

▶ 평생교육강좌 운영

지역주민들의 자아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강좌를 연중 운영 중이다.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로봇과학	초등 1~6학년	3.15.~6.21. (총 15회)	매주 토 13:00~15:00
멘사 사고력 수학	초등 1~2학년	3.15.~6.21. (총 15회)	매주 토 15:00~17:00
민화	일반	3.11.~6.24. (총 15회)	매주 화 10:00~12:00
풍수지리	일반	3.11.~3.18. (총 2회)	매주 화 19:00~21:00
어린이독서논술	초등 3~6학년 (늘품독서회)	3.29.~7.19. (총 10회)	매월 첫째셋째 토 10:00~12:00

여름방학특강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로봇과학	초등 1~6학년	8.5.~8.21. (총 6회)	매주 화, 목 10:00~12:00
이야기로 배우는 논리한자	초등 1~4학년	8.5.~8.21. (총 6회)	매주 화, 목 13:00~15:00
어린이 공예교실	7세~초등4학년	8.1.~8.22. (총 6회)	매주 수, 금 14:00~16:00

하반기 평생교육강좌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그림책은 내친구	유아 5~7세	9.20.~12.13. (총 13회)	매주 토 09:30~11:30
로봇과학	초등 1~6학년	9.20.~12.13. (총 13회)	매주 토 15:00~17:00
이야기로 배우는 논리한자	초등 1~4학년	10.20.~12.27. (총 13회)	매주 토 13:00~15:00
생활 민화	일반	9.16.~12.30. (총 16회)	매주 화 10:00~12:00
엄마를 위한 독서치료	일반	9.19.~12.19. (총 13회)	매주 금 10:00~12:00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예교실	다문화 이주여성	9.18.~12.18. (총 13회)	매주 목 10:00~12:00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조금은 늦게 와도 좋다. 기다리는 동안의 환희에 가까운 고통, 그 애탐과 간절함, 때로는 그 힘이 내 삶의 가장 큰 구심점이 되기도 하니까. <조경란 '악어 이야기' 中>

추천 도서 READING LIST



『세계가 반한 우리 무형문화재』

이경덕 글, 오동 그림, 스킨라, 2014

『세계가 반한 우리 무형 문화재』는 아빠와 아이가 ‘무형 문화재 놀이동산’을 통해 무형 문화재를 체험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역사적, 예술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무용, 연극, 공예 기술 및 놀이를 배우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더불어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갖고 유연하며 현명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빛내는 중요 무형 문화재 123’을 권말에 수록해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봄이 준 선물

김하루 글, 권영목 그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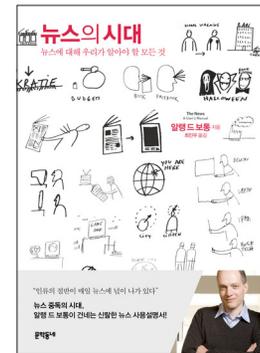
미래그림책 시리즈 123권. 하루가 다르게 화사하게 변해가는 봄을 배경으로 겨울잠 쥐가 받게 되는 아주 특별한 선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누군가를 위해 소중한 걸 내어놓을 때 기쁨이 배가된다는 걸 잔잔하게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점점 화사해지고 무르익어가는 봄이 마치 한 편의 판타지를 보는 것처럼 화사하게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식탁위의 세계사

이영숙 지음, 창비, 2012

제2회 창비청소년도서상 교양 부문 대상 수상작. 우리 곁의 친근한 먹을거리를 통해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로 안내하는 흥미로운 청소년 교양서다. 감자에서 비롯된 아일랜드 대기근부터 옥수수에 대한 러시아 지도자 흐루쇼프의 열정, 소금법에 저항한 간디의 소금 행진 등 식재료에 관계된 열 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지음, 문학동네, 2014

일상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전하는 뉴스의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그는 이 책에서 뉴스를 소재로 우리 시대의 미디어를 둘러싼 풍경을 날날이 묘사하면서, 쇠도하는 뉴스와 이미지 들 속에서 좀더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뉴스를 수용하는 법에 대해 말한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뉴스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지혜를 얻기 힘들어진다. 이 책은 뉴스의 세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항해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책이다.